

[종합·해설]

檢 '도곡동 땅 의혹' 발표... 朴·李 공방

朴 "사실상 李 소유... 사퇴를"
李 "음해세력 국민에 사죄를"



13일 경기도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왼쪽)이 연설을 마친 뒤 김문기 후보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측은 13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보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과 관련,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전 시장의 말뿐인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묶이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이 전 시장 소유라는 게 밝혀졌다"며 전방위 공세를 나섰다.

박 전 대표측은 이날 오후 홍사덕 전 대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이 전 시장의 명백한 거짓말이 드러난 이상 모종의 중대 결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 전 시장은 그간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온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약 검찰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져 이 전 시장을 보선에 진출시킨 다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정권교체의 꿈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3연패의 눈에 빠진 한나라당

은 존폐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퉁이 송언하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선진국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면 즉각 후보사퇴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닉스 전 미국대통령은 이보다 사소한 거짓말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며 사퇴를 우회 촉구했다.

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이날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도곡동

朴 "닉슨은 더 사소한 것으로 물러나"

李 "제3자 차명재산 단정 이해 못해"

황이 이 전 시장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측이 줄곧 이 전 시장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해 온 이 전 시장 차명재산이 도곡동 땅 절반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이 검찰수사로 명백하게 밝혀

진 만큼 차명재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게 이 전 시장측의 판단이다.

캠프는 이 전 시장 큰 형 상은씨의 나머지 절반 묶은 차명재산 의혹이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이 전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수사가 완

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어떻게 차명재산으로 단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캠프는 그러면서 이 전 시장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해 온 박 전 대표측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캠프는 검찰이 경선을 몇새 앞두고 중간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할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한 수사결과를 발표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캠프 일각의 시각이다.

민주당 독자 경선 추진

대선 기획단 구성... 당명 환원
신국환 의원, DJ 공개 비판

중도통합민주당이 독자적인 대선 후보 선출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범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합이 무산됐다. 특히, 신국환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서며 대통합과정에서 불거진 동교동과 민주당의 갈등의 골도 깊게 패이고 있다.

13일 박상천 중도통합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중추위 연석회의에서 "대통합민주당이 민주당의 일관된 요구를 묵살하고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을 결심, 친노(親盧) 세력이 강화된 '도로 열린우리당'이 됐다"며 "이제 대선기획단을 구성, 독자 경선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신낙균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대선 정책개발 및 대선 예비후보 지원 방안, 경선일정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안을 기초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과 자체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오는 10월 초 경선을 마무리, 민주신당 보다 대선 후보를 먼저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명을 중도통합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공식환원하고 당의 로고도 원상 복구시켰으며 오는 17일 대전에서 대선·총선 전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대선 예비주자 유세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신국환 의원은 김 전 대통령에 지난 13일 대통합 민주당이 '도로 우리당'이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김 전 대통령께 드리는 질의서'를 통해 DJ를 공개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하고 광주 동구 및 남구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에 박주선 전 의원과 황일봉 남구정당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여수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에 김정민 여수시위원을 선임했으며 장흥군과 무안군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에 이민우, 양승일 전남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혁규 의원직 사퇴
"대선 행보는 계속"

열린우리당 대선주자인 김혁규 의원이 13일 대통합민주당 참여를 거부하며 열린우리당 사수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의 창당과정을 보면서 원칙과 대의가 실종되고, 정치인의 기본적인 도리와 윤리마저도 없으며, 특히 신당은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추구해온 새로운 정치에 대한 진정성도 없고 미래비전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정치적 뿌리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백년정당을 만들자던 동지들에 대한 인간적·도덕적 신의까지도 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비애를 느꼈다"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최후 마지막 당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인 그가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민주신당과 우리당이 당대당 합당을 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21명의 의원직도 승계토록 돼있어, 탈당하거나 소속정당이 없어진다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러나 "대선 출마는 아직 유요하고 현재로서는 주자로서 행보를 계속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혀 민주당 외부에서 독자세력화를 추진하면서 연발 대선을 준비할 뜻을 시사했다.

■ 'BBK 의혹' 한 경선 쟁점 급부상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된 BBK와 이명박 후보의 관련 여부가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BBK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된 김경준씨가 '한겨레 21'과의 미국 현지 인터뷰에서 "BBK의 투자 유치는 모두 이명박 후보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BBK가 삼성생명·심택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유치한 것

김경준 "이명박 후보가 BBK 투자 유치"
李 "가치없는 허구...김씨는 제2의 김대업"

과 관련 "투자 유치는 모두 이명박 후보가 한 것"이라며 "내가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는 9월이면 한국에 가서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이 후보가

"BBK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경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씨의 진술이 알려지자 박근혜 후보 측은 이명박 후보 측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박 후보 측 김재원 대변인은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금융사기꾼과 대선 후보가 검찰에서 서로 사대질을 하는 형국이 벌어진다"며 "한나라당 유권자들은 이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 측은 김경준 씨를 '제2의 김대업'이라고 규정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후보 측 장광근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BBK의 사실상의 창업주"라는 김경준의 발언은 대꾸할 만한 가치도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www.ori27.com
정성·유미·다하는 27년 오리요리 전문점
봉선직영점 오픈성업중
첨단본점 (062) 973-5279 롯데마트 주차장 건너편
상무직영점 (062) 372-5279 신현 합티아파트 앞
봉선직영점 (062) 674-5279 남구청앞 솔비렉스 1F 뒷편
남구청앞 솔비렉스 1F 뒷편

통증
진정한 통증 관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통증 없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통증 제거 기술을 배워 본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회에서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만으로 아래의 모든 증상 외 수많은 통증을 발생 원천부터 즉석에서 제거하는 기술까지 모두 지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 등 록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심 통증 예방 관리학과 ● 전 화 : 조선대학교 (062)230-7700, (직통)019-305-9138
● 개강일 : 9월 6일(목) 오후 14:00~17:00 저녁 19:00~22:00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고시원 매매
❖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입니다.
❖ 5층건물 매매가 7억5천
❖ 6층건물 매매가 7억5천
❖ 7층건물 매매가 7억5천
❖ 4층-6층건물 매매가 7억
❖ 고시원을 보장하는 고시원에 투자 하십시오
H.P: 011-804-5239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라빌에서 50m 직편 www.85658949.co.kr)
전원주최용지 24필지 선착순 분양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단체 분양 환영)
● 위 치 : 담양군 용면 추성리 산28번지 일대
● 분양면적 : 205필지 414평까지
● 분양 가 : 상담 후 결정
● 본택지의 특성
1. 접근성이 용이함 - 동광주C에서 30분거리
2. 점남향으로 단지를 배치하여 조망 및 일조권 확보
3. 주변의 레저 및 관광활동이 근거리에서 위치 (추월산, 담양조토, 죽녹원, 담양호, 가미골 생태공원 등)
4. 투자기치가 높음
◀ 급히 구 합니다 ▶
● 그린벨트 농지 3,000평 구함
서구 남구 경지정리관 농지(대토음)
● 광산구 우산동 농지 구함-비협상 맞은편(약2,000평)
● 관리지역 토지 구함
(광산구 상도동 문림동 관내농지 경유에 관계 없음)
● 모지구함 : 1,000평 이상
(함경나산 / 나주노안 분할 급한 다도 / 장성)
저희 염소는 20년 가까운 중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직종의 전문가와 입사전선에서 전공까지 원소로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병일, 공장, 원룸, 식당, 모텔, 차고지, 전원주택, 주유소, 가스충전소, 부지, 투자용토지, 상가건물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열서기는 시합불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인찰장 안)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 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관리분, 영도 유치권내에서 및 영남지역, 낙동지역(영남권) 예고등기, 산유권,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 차별화된 상담을 제공합니다.
▶ 근거리/모텔/주거/상업
대표이사 011-666-8446
▶ 모텔/원룸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 상가주회/주회
▶ 임야/농지
▶ 아파트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8월 1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들이
첫진도 개강
● 기본서 핵심요약으로 심화과정 이해
●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한 출제 포인트 이해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책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롯데마트 앞 영풍주방 4F)
광양점 "개원" ☎ 795-0980 (광양제철사거리 6F)
H.P: 011-804-5239